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

두지가* · 김서현**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의 의미를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4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했고,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의 3차원을 분석틀로 활용했다. 자료분석 결과, 개별 연구참여자들은 유학생활동에서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각자의 분투와 저력으로 감당하거나 극복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공통되게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 주제가 밝혀졌다. 이는 '언어의 침묵에서 학문의 울림으로', '관계의 미로 속에서 피어나는 소속감', '의존이라는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자립', '홀로 걷던 길에 놓인 든든한 다리들', '흔들리는 나침반이 가리킨 새로운 방향'이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재한 중국인 대학생, 유학생활동, 위기 극복, 내러티브 탐구

* 제1저자, 전북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duzhijia123@naver.com

** 교신저자, 전북대, 사회복지학, 부교수, shkim717@jbn.ac.kr

1. 서론

인간의 삶에서 위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이에 대한 이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위기(crisis)는 ‘명확한 촉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심리적·행동적 무질서 상태’로 정의되었다(Bloom 1963). 현대사회에서는 위기를 객관적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성되는 사회적·주관적 경험으로 간주한다(Lazarus and Folkman 1984; Oscarsson 2022). 또한, 그와 관련한 당사자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연구들은 위기를 단순히 부정적 사건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Southwick and Charney 2018; Walsh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를 기존의 대처 자원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리적 불균형과 기능 위협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명명한 위기는 통상적인 난관이나 어려움과 달리 개인의 정체성 내지는 가치관의 재편성을 요구하는 전환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전술한 것처럼 개인 차원의 회복탄력성에 근간한다. 참고로, 회복탄력성은 고통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적응적 과정을 말하는데(Abate et al. 2024), 개인·사회·시스템 수준의 다계층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구성적 특성을 지닌다(Schäfer et al. 2024).

이러한 위기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극복을 이해한 바탕 아래 글로벌 시대 외국인 대학생의 적응과 발달을 논할 수 있다. 즉,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일상을 새롭게 영위해 가는 외국인 대학생들은 삶의 전반에서 위기를 만나며, 그에 관한 극복 경험은 인간적으로 모든 존재자가 마주하는 본질적이고 본래적 현상이라고 사료된다(Ahrari et al. 2019; Li et al. 2015). 외국인 대학생들이 삶에서 직면한 위기는 여러 전문가의 보고를 통해서도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일례로,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대학생 수는 총 208,962명에 달하는데(교육부 2024), 그중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 체류

자 수는 958,959명으로 전체 재한 외국인의 36.2%를 차지한다(법무부 2024). 그런데,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한자 문화권 배경과 집단주의적 성향을 공유해 독특한 유학 경험을 형성하고(유지현·김혜영 2022; 최승은 2020), 위기 상황에서는 집단 의존이라는 특별한 대처 양상을 보인다(Li and Peng 2019).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유학생활 중 의사소통, 학업, 대인관계 등의 복합적 위기를 경험한다(유지현·김혜영 2022; 이만제 2018; 장이 2019; Kim and Kim 2019).

또한, 중국과 한국 간의 교육 시스템과 학습 문화의 차이로 상당수의 중국인 대학생은 정체성 혼란과 문화적응 위기를 겪고, 이는 학업 자신감 저하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졌다(박지선·천지은 2017; 최승은 2020). 예컨대, 엄격한 중국의 교육 체계에 익숙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도적이고 엄격한 교육 모델에 익숙하여,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학업수행이 요구되는 학습 환경에서 독립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을 하기 어렵힌다(이윤희 외 2022). 심리정서, 학업, 문화적응 등 일상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로 일부 유학생들은 학업 지속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학업 포기나 전공 변경 등을 선택하기도 한다(이영준·이유경 2022; Thies and Falk 2024).

그렇지만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청년 초기 발달단계에 있어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업 성취, 진로 결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경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초기 발달과업 성취 여부는 사회적 고립감의 차이를 가져오며, 결혼과 취업 성취 실패는 청년들의 심리적 위기를 증가시킨다(김재희·박은규 2016).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 역시 일반적인 청년기 발달과업과 더불어 타국에서의 문화 적응이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히 일상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지원책을 모색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위기를 맞닥뜨리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가는 일련의 경험에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외국인 대학생들의 적응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문제 중심적 접근을 취했다면(김솔·김보영 2024; 손상미 2024; 유지현·김혜영 2022), 본 연구는 위기 극복과 결부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성장과 회복 과정을 탐구한다는 점이 차별된다. 이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에 주목하는 것은 재한 중국인 대학생은 물론 유학생과 같이 한국에 새롭게 적응하고 삶의 다른 차원을 열어가는 이들을 강점 기반으로 바라보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어, 이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과 관련해 지금까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던 위기 극복 경험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위기 극복과 관련된 개인적 체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초월하여 인간의 적응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핵심적 영역이며,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방편이다(Feder et al. 2019; Schäfer et al. 2024). 특히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을 Clandinin와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지식으로 압축하여 교육과 사회 등 여러 유관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석소원·김서현 2022; 송비정·홍재영 2020). 더불어, 이 연구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 교육 지원과 사회복지적 개입을 촉진한다는 탐구의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의 의미를 내러티브 질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2. 문헌고찰

1)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유학생활동에서 직면하는 위기

최근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확보 필요성으로 외국인 대학생 유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와 대학의 정책 노력으로 전체 외국인 대학생 수가 지속 증가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그러나 유학생 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차원적 어려움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김령·임선아 2021). 유학생의 부적응 현상은 미국 인류학자 Oberg(1960)가 최초로 제시한 문화충격의 개념과 결부해 분석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개체가 새로운 문화환경에 진입할 때 익숙한 환경 단서를 잃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혼란을 묘사한다. 예컨대, 다수의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중한 문화 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이들의 문화적응 과정은 학업적 도전, 인간관계의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남순현 2021; Kim and Amar 2025). 이러한 학자들의 설명을 참작하면,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제도적·학문적·정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이는 개인적 위기를 넘어 구조적 위기와의 결부되어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이주자 문화권과 한국의 교육체제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우려했다(정경희·김영순 2018). 생활습관의 차이, 한국의 위계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이 일상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성별, 성적, 거주형태, 한국어 능력, 건강상태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되며, 일부 외국인 대학생들은 한국의 위계문화 부적응으로 귀국을 선택하기도 한다(남순현 2021; Li 2017). 그에 더해, 한국어 능력 부족은 중국인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겪는 위기로 판단되는데, 학문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시험 문제 이해, 논문 작성, 발표 준비, 조별 활동 등과 결부한 소통의 어려움이 크며, 이는 심할 경우 유학생활동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박종호 2024; 정유리 2018; 최성호·장경원 2018; Yan 외 2024). 이러한 특징

에 관해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 고등교육 체계와 중국 현실 간의 차이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수업 참여를 강조하고 소그룹 토론을 중시하며, 평가 기준에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고,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 수업을 병행한다. 그런데, 전통적 교육 방식에 익숙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이러한 형식의 학업 수행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다(Poyrazli and Grahame 2007). 그와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인 대학생들이 학위 취득 과정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며, 학교의 행정 시스템 이용시에도 불편함을 자주 겪는다고 우려했다(정경희·김영순 2018). 직무현장 기반의 실습 수업 참여시에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데, 낮은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적응한다든지 관계 갈등을 겪는 경우, 혹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격이 누적될 경우 유학생 활의 어려움이 증폭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배진형·안정선 2016).

학업 수행의 어려움은 일상 전반에서 비롯되는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동포 간 갈등, 사회적 고립 등 인간관계 전반에서 특히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했다(박종호 2024; Yang 2021). 관계적 위기 경험의 원인에 대해, 연구자들은 중국인 대학생들이 자국 동포 집단에만 의존하여 한국 사회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Li·안도희 2016). 그런데, 사회적 관계 맺기의 제약이 경제 및 심리적 부담과 결합하게 되면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김서현·두지가 2024; 남순현 2021).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압박, 직업 발전 불확실성 등 각종 압력의 누적으로 심리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이는 관계 갈등은 물론 중국에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김현화 외 2022; Peng·김주경 2024). 더 나아가,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학업 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내국인의 차별적 시선이라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Peng·김주경 2024). 그와 관련해서, 중국인 대학생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학습의 어려움처럼 당장의 현실적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진로발달과 유학 이후의 건강한 삶 유지, 유연한 가치관 정립 등에도 총체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유강서신·박지혜 2024).

2) 유학생활에서의 위기 극복과 청년 초기 발달

‘위기 극복(crisis overcoming)’은 문제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난관을 대면하고 해결책을 나아가는 능동적 과정이라고 설명된다. 어원적으로는 ‘이길 극(克)’과 ‘굴복할 복(服)’의 한자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 극복에 대한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극복’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 속에서도 기능적 적응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심리적 과정으로 풀이된다(Abate et al. 2024; Bonanno et al. 2024).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위기 극복이란 ‘특정한 삶의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반응이 아닌, 다양한 심리적 자원의 작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자원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그릿(grit)이다. 먼저, 극복력의 핵심 개념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 정서적, 행동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긍정적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역동적 심리 과정으로 정의된다(Zietse et al. 2025). 최근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이 고정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적응 역량임을 강조하고 있다(Terrana and Al-Delaimy 2023; Zietse et al. 2025). 이와 더불어 그릿(grit)은 장기적 목표를 위해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을 결합한 성격 특성으로,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Terry et al. 2024). 특히 여러 연구에서는 노력의 지속성이 성취 및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회복탄력성 및 성장 마인드셋과 함께 개인의 적응 능력과 지속적 목표 추구를 지원하는 주요 심리 자원으로 제시되었다(Credé et al. 2017; Calo et al. 2024).

이러한 심리적 자원은 특히 청년 초기(emerging adulthood)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발달단계상 청년 초기는 대략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시기로, 자아 정체성 탐색, 진로 및 역할의 불확실성, 자율성·대인관계 형성 사이의 균형

이라는 심리·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심리·사회적 전환기다(Schwartz 2016). 즉, 이 시기는 삶의 방향 전환점(turning point)이자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취약성이 공존하는 때이며, 특히 외국인 대학생처럼 타문화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정체성 충격과 사회·정서적 고립의 경험이 맞물리는 복합적 도전기다(Potterton et al. 2022). 이와 관련하여 Mitchell과 동료들(2021)은 정체성 통합(identity integration) 과정의 핵심 요소로서 정체성 정합성(coherence), 정체성 갈등(conflict), 사회적 역할 간 정렬(alignment)을 언급하고, 정체성 통합 수준이 낮을 때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Mitchell et al. 2021). 이는 청년기 위기 극복이 단순히 환경에의 적응을 넘어, 자기 정체성의 확립과 통합이라는 내면적 과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최근 연구에서는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 해결 중심 전략(problem-focused coping),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Alsham-mari et al. 2023; Quaglio et al. 2025). 특히 Quaglio 외(2025)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보호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의 그릇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속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변수로 강조되었다. 일례로, 대학 신입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그릇이 대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전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며(Yang et al. 2022), 특히 노력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되었다(Andales et al. 2025). 인간은 삶의 곳곳에서 위기를 경험하지만, 내외적 요소나 개인이 자리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정도나 양상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과 관련한 현실을 선행 연구에 토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극복 능력에 관한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이들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점차 강한 회복탄력성과 목표 지속 능력을 발현하게 되며, 특히 학업 단계가 높아질수록 적응 능력이 강화되는 누적적 성장의 특성을 보인다는 보

고가 대표적이다(왕정정·김기용 2024). 그와 같은 결과는 회복탄력성과 그것이 외국인 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됨을 시사한다(이은성 2020). 다른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수동적 적응자에서 능동적 설계자로 변화하는 자기 주도적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전영환 외 2023). 일례로, 왕군과 지명원(2024)은 ‘끈기(perseverance)’라는 요소가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인내에 그치지 않으며, 문화적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피력했다. 중국인 대학생들이 개인적 위기를 넘어 COVID-19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속에서도 역설적 성장을 경험하며, 위기를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 적응적 창조성을 발현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유염향 외 2023). 이렇듯 유학생들의 위기 극복에 관한 맥락 보고 결과를 기존 문헌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학업과 생활의 이중 도전 속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변혁적인 극복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다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목표 지속 능력, 그리고 위기를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적응적 창조성 등에 대해 유의미한 발견점을 제시했음에도,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간극이 있다.

3.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생생한 삶의 체험을 서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정은우·송연주 2024; 홍영숙 2015). 이 방법은 시간성(continuity), 사회성(situation), 공간성(transaction)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연구를 수행

한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시간성은 경험의 시간적 흐름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공간성은 경험이 발생하는 구체적 장소와 상황적 배경을, 사회성은 개인과 주변 환경 및 타인들과의 관계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틀이다(Clandinin and Rosiek 2007). 본고는 Clandinin과 Connelly (2000)의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텍스트 작성하기’의 4단계로 수행하였다(염지숙 2003). 자료 분석 시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연구 과정을 유연하고 순환적으로 진행하였으며(염지숙 2003), 이를 통해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 경험을 시간적 흐름과 상황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염지숙 1999).

2) 연구참여자 기준

본 연구는 다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재한 중국인 대학생으로서 유학 과정에서 위기 극복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신중히 선정하였다. 첫째, 고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20~30대 재한 중국인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택하였다. 둘째, 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생활한 중국인 대학생을 만나고자 했다.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의 학업 환경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으며, 위기 극복 경험을 충분히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구지은·박형준 2022). 셋째, 전공 분야는 제한하지 않았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국인 대학생의 위기 극복 경험을 폭넓게 탐구하기 위해 여러 전공 배경을 가진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을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명을 사용해서 <표 1>에 정리하였다. 이들은 유학 초기에 심각한 언어적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적극적인 학습 전략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 경험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참여자는 21~25세의 청년 초기로, 여성 3명, 남성 1명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골고루 거주하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계열이고, 한국 거주 기간은 2~3년이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기초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학부에 입학하였으며, 유학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다층적인 위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성별	거주 지역	전공	학년	거주 기간	장래희망
소민(小敏)	21세	여	서울	신문방송	2학년	2년	대학원
명원(明远)	25세	남	비수도권	무역	2학년	3년	취업
정정(婷婷)	23세	여	비수도권	문화영상	4학년	2년	영상 감독
위위(伟伟)	25세	여	비수도권	사회복지	3학년	3년	대학원

3) 수행과정

(1) 현장에 존재하기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의 대면 심층면담이 가능한 거리의 대학교 5곳을 직접 방문 및 전화하며 연구참여자를 찾았다. 일부는 유학생 커뮤니티와 학교 국제교육부 등의 관계자를 접촉해 표집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 4명과는 각각 개별적으로 1회기 60~90분씩 평균 3~4회 심층면담 방식에 따라 대화했고, 총 14회기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김병극 2012), 면담 이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연구참여자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Creswell and Poth 2016; Kvale 1994).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관계 중심의 연구 접근법을 취하였다(Clandinin and Murphy 2009). 본 연구진 중 심층면담을 담당한 공동연구자 역시 유학 경험이 있어 언어적, 문화적 적응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 라포 형성이 쉬웠으며 연구자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역시도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학교 세미나실, 조용한 카페 등이었으며, 온라인 면담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숙사나 자취 방에서 자유롭게 조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현장에서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개방 형식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서는 참여자들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폭넓은 범위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Clandinin and Connelly 2000; Kim 2015). 이를 고려해서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유학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위기 상황 경험은 어떠했나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유학 생활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 유학을 통해 자신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등이었다. 또한 본 면담 회기 외에도 카카오톡이나 위챗 등 SNS 기반으로 자주 소통하거나 함께 식사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3)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했다. 예컨대, 면담 장소나 접촉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연구참여자에게 부여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학업 일정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 기간을 유연하게 조율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 간 역번역(back-translation)을 실시하여 번역의 오류 및 왜곡을 검증하였다(Yunus et al. 2022).

그리고, 모든 심층면담은 정확한 기록과 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다. 면담 과정 중에는 현장 메모도 작성하여 분석 과정에서 참고하였다. 녹취록은 모든 내용을 반복 확인하였으며, 불분명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에게 SNS와 전화로 확인해 수시로 보완했다.

(4)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자료 분석을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우선, 연구자는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핵심 요소인 시간성, 사회성, 공간성을 중심으로 각 연구참여자의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서영주 2020; 장정은·구자경 2017).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유학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으로 재구성하면서, 각 시점에서 영향을 미친 중요한 관계들, 전환점이 된 사건들, 그리고 이들 경험이 형성된 장소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경험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과정 중에 연구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은 별도로 범주화하여 위기 극복 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텍스트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 경험에 담긴 의미와 그들만의 고유한 적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시작 전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IRB 번호: 2025-04-023-003), 연구자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연구참여

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식, 자료 활용 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획득하였다. 특히 면담 중 개인적으로 민감하거나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모든 음성 파일과 전사 자료는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였으며,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였다. 참여자의 실명과 개인정보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가명으로 대체하였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면담 진행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정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편안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개인적 경험을 나누어 주신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면담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고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은 이야기적 탐구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홍영숙 2015). Lincoln과 Guba(1985)가 강조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각 연구참여자에게 전사본을 제공하여 본인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받았으며,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와 함께 의미를 재검토하여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왜곡을 최소화하였다(Yunus et al. 2022). 둘째,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관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중요하므로, 면담 종료 후에도 카카오톡과 위챗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김필성 2015).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억이나 감정, 추가적인 성찰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연락망을 유지했다. 셋째,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

해 매 면담 후 연구일지를 작성하고 동료 연구자들과 논의하여 객관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수행을 비롯한 내러티브 탐구 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 전문가들로부터 다각적 검토를 받았다(홍영숙 2015).

4. 이야기 안으로

1) 연구참여자의 개별 이야기

(1) 소민의 이야기

사천 출신 외동딸인 소민은 고교생이던 당시 대학 입시 결과에 불만족하여 이모의 제안에 따라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 K-pop에 대한 열정과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여 시작한 유학이었지만, A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며 이모 집에 거주하던 소민은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녀는 자유롭지 못한 유학생살로 좌절했다. 가장 힘든 것은 이모와의 관계였다. 소민에게 이모는 보호자이자 통제자였고,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고 이모의 일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억압감을 느꼈다.

이미 친구와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모가 갑자기 일을 시키면서 약속을 미루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소민, 2회기 면담 중).

어학연수 기간 중 소민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어학원 구성원 중 중국인은 자신 외에 한 명뿐이었고, 베트남과 몽골 등 다른 국가 학생들은 각각 자국민끼리 소그룹을 형성했다. 소민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몰랐던 소외감이 깊어졌다. 다만, 그녀는 중국 친구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 방방곡곡을 친구와 함께 여행하며 그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친구가 와서 같이 놀 때 갑자기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도 해결할 방법이 있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구나...(소민, 2회기 면담 중).

B 지역으로 이주한 후 소민의 생활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했다. 같은 K-pop 아이들을 좋아하고 나이가 비슷한 유학생들끼리 우정을 쌓으며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 학업적으로도 변화가 컸다. 초기에는 전문용어와 이론 중심의 미디어학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AI 번역기를 활용한 자율학습과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점진적인 성장을 이뤘다.

정말 운명 같아요. 같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모두 한국에 있고요. 지금은 정말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소민, 2회기 면담 중).

현재 소민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을 넘어 호주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곳을 보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소민이 자신의 유학 경험을 도화원(桃花源, 세속을 떠나 평화롭고 행복한 곳을 뜻하는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에 비유한 것처럼, 아름다운 환상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한국 유학이 실제로는 현실적 도전과 성장의 공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2) 명원의 이야기

산동 출신인 명원은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 부모의 이혼, 외할머니 손에서의 양육, 어머니의 한국 재혼으로 인한 이복 남동생의 존재 등 독특한 원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경계인과 같은 정체성을 형성했다.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처음부터 강한 귀속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C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명원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환전 사기 사건이었다. 높은 환율에 이끌려 지인을 통해 환전을 도와주다가 예

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 자금으로 판명되면서 계좌가 동결되었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던 그는 극도의 당황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당시 정말 당황하고 무서웠어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한국어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검은 돈이었더라고요(명원, 3회기 면담 중).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러운 위기를 통해 명원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유학생생활을 원만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한국어가 능숙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다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런 종류의 일은 철저히 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학생생활 중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명원은 학업적으로도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예컨대, 그는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공 수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입학할 때는 한국어 실력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5급은 땀지만 전문용어는 정말 어려웠어요(명원, 1회기 면담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신입으로서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립감도 느꼈다.

예전에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뭔가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 못 하게 됐어요. 예전 상태가 더 좋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명원, 4회기 면담 중).

(3) 정정의 이야기

정정은 22세 중국인 대학생으로, 강소성 소주 출신이다. 부모 이혼 후 홀로 성장한 그녀는 전문대 음악극 전공에서 한국 문화영상 전공으로 편입했다.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한국 유학을 선택했지만, 어학원 과정 없이 바로 편입하면서 언어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같은 학과에 중국인 학생이 없어 완전한 학업적 고립을 경험했고, 교수와의 소통이 불가능해 실기 수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나와 같은 전공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고, 학습 상태에서도 오직 나 혼자였어요(정정, 2회기 면담 중).

더욱 심각한 위기는 인간관계에서 찾아왔다. 그녀는 2023년 3월경 만나 깊이 신뢰했던 남자 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배신을 당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지했고, 그 충격으로 정정은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남자 친구는 정정을 비방하며 다녔고, 결국 그녀는 2개월가량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앓아온 불안과 우울이 급격히 악화했다. 신체적 증상도 심각했다. 손 떨림, 수면 장애,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났고, 겨울밤 이불을 두 장 덮고도 온몸이 떨려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다. 친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후 일상 전반에서 과거의 상처가 재현되었다. 이처럼 한국 유학 중 정정은 안전해야 할 개인적 공간에서조차 불안을 느끼며 세상에 대한 경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갔다.

잠을 잘 때 가장 심각했던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예전인데, 잠을 자다가 떨고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불을 두 장 덮었어도 온몸이 떨려서 깨어났어요(정정, 3회기 면담 중).

그러나 정정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통해 놀라운 심리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문제 대처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감정을 토로했지만, 현재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성숙한 접근법을 보인다. 인간관계에 대한 건강한 경계 설정 능력도 발달시켰다. 과거에는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자신의 직감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게 되었다.

먼저 감정을 토로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한 다음에,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얘기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정정, 4회기 면담 중).

다른 사람을 너무 믿지 말자, 다른 사람의 첫인상을 너무 믿지 말자. 왜냐하면 저는 첫인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정정, 4회기 면담 중).

(4) 위위의 이야기

광동성 출신의 위위는 전 남자친구와의 인연으로 한국 유학을 시작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한 그녀에는 한국 생활을 통해 처음 독립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K-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유학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어학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5급까지 공부한 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특히 대형 강의실에서는 이미 친한 사람들 사이에 낯선 타자가 되어 우물쭈물 끼어 앉아야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불편함을 느꼈다.

대형 강의실이 모두 가득 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편안한 작은 환경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 같아서 꽤 어색하고 불편했어요(위위, 3회기 면담 중).

그러나 위위에게 가장 큰 시련은 2년 차에 겪은 임대 사기 사건이었다. 어학원 동급생의 소개로 집을 구하러 갔던 그녀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으로 인해 원치 않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후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사를 가고 싶

었지만, 그러한 의사를 전할 때마다 집주인은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한 달 넘게 분쟁을 겪으며 거주하지도 않은 집의 임대료와 보증금 2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나는 많이 성장했어요. 내가 잃은 것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 더 나아가서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아이 같은 성격이었는데, 그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어요(위위, 3회기 면담 중).

이 사건을 통해 위위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이 경험을 ‘가장 큰 인생 교훈’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전공 공부에서도 위위는 점진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단순히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차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신의 열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 위위의 가장 큰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이제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자신 감 회복을 위해서는 작은 성취를 축적하는 전략도 활용하려 한다.

공부할수록 지루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 열정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위위, 4회기 면담 중).

작은 일부터 자신에게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 오늘 이 과제를 잘 해냈다, 난 정말 대단하다...(위위, 4회기 면담 중).

2)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에 관한 공통의 내러티브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4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해 개별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 이론을 차용하여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 세 차원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유사점을 내러티브로서 이해하고자 구술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침묵에서 학문의 올림으로', '관계의 미로 속에서 피어나는 소속감', '의존이라는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자립', '홀로 걷던 길에 놓인 든든한 다리들', '흔들리는 나침반이 가리킨 새로운 방향'이라는 5개의 주요 주제를 확인하였다.

(1) 언어의 침묵에서 학문의 올림으로

한국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한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언어는 학업 수행 중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이들에게 언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구인 동시에 제약이었다. 즉, 언어 능력은 중국인 대학생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적응 능력에 직접적으로 결부됨이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로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유학생들 중 다수가 한국 유학 전에 이미 일정한 한국어 기초를 갖추며, 심지어 TOPIK 급수 시험을 통과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 학습 환경에서 언어 장벽의 복잡성과 깊이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김령·임선아 2021; 정연숙 외 2022; Singh and Jack 2022). 이러한 장벽은 일상 소통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공 학습, 수업 참여 및 학업 성과에 더욱 깊은 영향을 미치며,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불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도전 중 하나로 간주된다(서영주 2020; 주월랑·강병현 2022).

연구참여자 중 소민은 전공 수업에서 다루는 복잡한 이론과 전문용어에 직면할 때 여전히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러한 현실은 시험 성적 부진으로 이어져 자신을 '엉망진창'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독학과 번역 도구에 의존하여 겨우 학습에 임해야 했다. 명원은 TOPIK 5급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공 과목에 들어간 후 대량의 학술 명사와 복잡한 이론 체계에 직면하여 여전히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 학생들과 진도를 맞출 수 없어서 좌절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한국어 수준이 정말 충분한지 의심하게 되었다. 어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정에게는 언어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녀는 모든

연구참여자 중 유학 초기 부적응이 특히 극심했다. 예컨대, 한국에 온 첫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커피를 주문하는 것조차 순조롭지 않았다. 더욱이,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수업에 임하면서는 소통의 오류로 위기가 극대화했다. 심지어 관심 있던 교과목 수업 첫주에는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수강을 포기하고 교수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녀는 또한 예술문화영상 전공에서 다루는 철학, 미학 등의 전문 어휘에 접근하는 일자체가 위기였고 수업은 고통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학자들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의 제약과 전공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영·김정숙 2015; 박선진 외 2018).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언어의 문제가 항상 유학생들의 주요 위기에 공존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례로, 위위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지체한다고 인식하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번역기나 AI 의존적으로 변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번역 도구를 과도하게 의지한다든지 한국인들과의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점과 결부된다. 명원 역시도 언어 장벽으로 인해 차별 받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위기 가장 핵심이라고 분석된다(김해연 외 2019; 최윤희·이정은 2016).

다만, 타국의 언어 사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근본적 도전이었음에도, 이들은 언어적 침묵의 위기 속에 놓일 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번역 도구에 의존하며 독학으로 유학 과정을 버텨내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말과 글로 능통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꺾이지 않는 학구열을 통해 마침내 학문의 울림을 되찾았다. 이는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언어 장벽이라는 위기를 의미 있는 변화의 전환점으로 승화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 관계의 미로 속에서 피어나는 소속감

인간관계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소속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지지처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Aristotle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좋은 인간관계는 개체의 정신건강과 사회 적응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이서정 2018; Xing and Ge 2025). 그러나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유학생활 중의 인간관계의 구축과 유지는 종종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외로움과 고립감에 얽혀 위기를 증폭시켰다.

자료분석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유학 초기 언어 적응단계에서 특히 강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다. 위위는 친밀한 중국 친구들이 졸업 후 귀국하거나 결혼한 후, 유학 기간 중 가장 고통스러운 1년을 경험했는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적적했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이 가장 심한 시절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인관계로 인한 고립의 경험은 중국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소민은 서울에 온 후 새로운 중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으며 외로움이 크게 완화되었다. 명원은 거의 혼자 지냈던 어학원 시절과 다르게 대학 입학 후에는 교내 활동과 아르바이트로 대인관계 폭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관계의 미로 속에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외로움과 배척, 갈등의 관계적 위기를 겪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토대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잡한 관계의 길 끝에서 마침내 따뜻한 소속감을 피워낸 이들의 경험은 위기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장의 증거였던 것이다.

(3) 의존이라는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자립

유학 생활은 종종 예상치 못한 도전과 위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성장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독일의 철학자 Nietzsche가 언급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회복력과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에 더해, 중국인 대학생들은 유학생활을 통해 과도한 의존에서 독립심을 확장해가는 전환도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위위는 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부모에게 의존했다. 과거에는 부모가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한국 유학 후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체감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은 위위를 정신적으로 강인하게 만들었다. 즉, 그녀의 경험은 외국인 대학생이 타문화 환경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Liu and Rathbone 2021; Ene and Orlando 2022). 소민도 어려움을 극복한 후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고,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보다 스트레스 저항력이 증강되었고, 심지어 감정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정정은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분출하는 데에 급급했지만, 점차로 해결 방법을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심리적 성숙과 감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배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의 중국인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능동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소민은 불편한 말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고, 적극적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구해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감정을 내재화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이 어른스러워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명원은 금융사기를 당했었지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 경계하게 되었으며,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도 여겼다. 정정은 친구의 배신을 경험한 후 깊이 반성하고 인간관계를 성찰하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었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섭리도 깨달았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태하듯,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위기와 도전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거듭났다. 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인격적 성숙과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보여준다.

(4) 홀로 건넌 길에 놓인 든든한 다리들

유학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친구, 가족 및 네트워크 플랫폼으로부터 귀중한 지지와 도움을 얻었다. 다양한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특히 친구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기반이었다. 외국인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친구나 교수자 등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는데, 대학생들 중에 만난 동료나 교수와의 관계는 외국인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과 학업 열의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김현화 외 2022).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소민은 기분이 우울하거나 억울할 때 바로 친구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그들로부터 위안과 힘을 얻었다. 위위도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나 남동생, 여동생에게 털어놓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걱정이 앞서는 부모보다 지지를 구하기 편한 상대였다. 정정은 같은 국적의 중국인 친구와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유의미한 타자와 친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스트레스를 적시에 완화하고 부정적 감정의 장기적 축적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에서 네트워크 플랫폼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한다(Li and Peng 2019; Zhou and Yin 2025). 그에 대해 소민은 위챗, 샤오홍수 등 SNS 소통이 유학생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온라인을 통한 간접 경험치를 늘려가면서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명윈도 재한 중국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중고 물품, 아르바이트, 주거 등의 정보를 확보했다며 그 유용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위위는 특히 네트워크상의 풍부한 정보를 장점으로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대학생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보 한 더미가 나온다'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빚지거나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친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이지는 않아도 촘촘하고 다층적인 지지체계를 발달시켜 갔다. 이러한 연결망은 든든한 다리처럼 이들 삶에 놓여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자 유학 생활의 생명줄 역할을 했던 것이다.

개인적 가치관 측면에서도 중국인 대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유학생들이 개인적 성장을 도우며 실질적으로 진로 발달과 적응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김경남·김남희 2021).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들 중 소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 벌기의 어려움을 체험했고, 이로 인해 노동 소득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자립심을 강화했으며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학업과 직업을 미리 계획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루하루 버티지 않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조망하게 되었다. 명원은 유학이 그녀의 세계관을 넓혔다고 확신하였다. 즉, 본국에서 ‘방화벽’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든지 다른 나라의 시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로써 세계관이 확장하였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또한 열심히 사는 한국 친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기도 했다. 정정은 혼자 생활하면서 소속감과 독립성을 얻었고, 인간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대하여 첫인상을 맹신하는 습관을 고쳤다. 인간관계에서도 사회기술을 습득하며 적응력을 신장했다. 모두 긍정적인 변화였다.

미래 계획 측면에서도 재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유연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과 같은 국제 교육 경험은 학습자의 문화적 인식을 의미미하게 향상시키며,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적응력 및 직업적 경쟁력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aas 2018). 예를 들어, 소민은 학부 과정을 졸업한 후 먼저 한국에서 1~2년 취업하여 해외 근무 경험을 축적하고 귀국 취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을 세웠다. 나아가, 그녀는 미래에는 호주에서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열망하게 되었으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하려는 포부도 밝혔다.

위위는 직업 선택시 한국과 같이 중국 이외의 환경에의 취업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유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의 폭도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소 편협했었던 사고체계가 변화한 것이다. 지금은 좋아하고 평범한 일을 찾는 것을 장래희망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좌절을 경험한 후 인생 목표에 대해 성숙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갖게 되었으며, 평범함도 하나의 귀한 성취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을 뜻한다. 정정은 비록 진로와 관련해 고민이 많지

만, 유학생활동로 전문성을 함양하게 되었으며 직업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다고 스스로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기까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었던 제한 중국인 대학생들은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활동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의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논하였다. 먼저, 엄격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4명의 연구참여자와 일대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각 연구참여자의 개별 특성을 자세히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를 추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전체 내러티브에 기반을 두어 최종적으로 재구성해서 5개 주요 주제, 즉 ‘언어의 침묵에서 학문의 울림으로’, ‘관계의 미로 속에서 피어나는 소속감’, ‘의존이라는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자립’, ‘홀로 걸던 길에 놓인 든든한 다리들’, ‘흔들리는 나침반이 가리킨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언어의 침묵에서 학문의 울림으로’라는 주제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심각한 언어 장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전략을 개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이들은 AI 번역 도구, 동료 상호부조, 집중 복습 등의 방식을 통해 학업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대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한 연구(김령·임선아 2021), 외국인 대학생들은 제한적인 한국어 능력으로 차별화된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연구(박선진 외 2018) 등과 관련해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유학생이 겪는 언어 장벽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외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면, 이 연구는 그러한 제언에서 더 나아

가 학습자로서 주체적으로 개발한 적응 전략을 극대화하면서 언어 문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 속에서 경험을 재해석한 의의가 있다.

둘째, ‘관계의 미로 속에서 피어나는 소속감’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사회적 고립과 관계적 갈등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관계적 위기를 통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였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우정, 배신, 재건 과정에서 건전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더욱이, 유학생들 중 겪은 관계적 배신과 갈등이 어떻게 성숙한 관계 형성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셋째, ‘의존이라는 껍질을 벗고 피어나는 자립’이라는 주제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당황스럽거나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심리적 성숙과 문제 해결 능력을 획득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유학생들에서 위기를 겪으며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기도 했지만, 점진적으로 이성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숙한 태도로 대처 방안을 찾아갔다. 이는 중국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그릿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김서현·두지가 2024; 왕정정·김기용 2024)와 결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특히 낮은 유학생들 중에도 위기를 통한 자립심 강화를 피하게 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기 상황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중국인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들 적응과 청년기 발달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홀로 걷던 길에 놓인 든든한 다리들’이라는 주제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다층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유학생들에서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주체적으로 확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외국인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교수, 동료, 행정부서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와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김현화 외 2022; 유지현·김혜영 2022). 흥미로운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사회보다는 중국인 동족 커뮤니티에 주로 의존했다는 것이다(이윤희 외 2022; 전영환 외 2023). 이처럼 중국인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동질적 집단에 편중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대학 및 한국 사회가 이들과 충분한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선이 시급함을 방증한다. 다만,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는 최근 외국인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통합 사용이 전반적인 학업 적응을 촉진한다는 연구(Zhou and Yin 2025)와 결부해 또 다른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일방적 지원 수혜자에서 능동적 지원 제공자로서 유학생활동에서의 자기역할을 전환하며, 유사한 경험자들 간의 호혜적 관계 속에서 상호지원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낸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나침반이 가리킨 새로운 방향’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정체성 위기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선형적 진로 계획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정체성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상적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수용하는 새로운 관점을 획득했고, 평범함도 성취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유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사실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해석된다(김경남·김남희 2021; 유강서신·박지혜 2024; Branje et al. 2021). 즉,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위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정체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특히 위기 직면과 극복의 모든 시간을 관통해 겪는 혼란과 불안정성으로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자아 이해를 견지하게 됨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유학생활동에서의 정체성 위기를 통해 완벽한 계획보다는 과정 중심의 성장 마인드셋을 발달시켰으며, 이에 기반을 두어 실패도 성장의 한 부분이라는 새로운 인식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풀이된다(김서현·두지가 2024; Mitchell et al. 202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위기 극복을 토대로 개인적 성취보다 관계적 정체성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자신의 진로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통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 초기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유학 생활 초기에 주로 극심한 위기를 겪었으며, 그것을 극복할 개인적 전략이 모호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유학 초반의 위기는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제도나 일상생활 적응 전반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시안을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시간의 기본 교육만 제공하고 있으며 실생활 적응 지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법무부 2025). 무엇보다도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예약, 임대 계약 등 일상 상황을 실용 한국어 집중교육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 사기, 불법 계약 유도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단순한 언어 교육만으로는 외국인 대학생들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사기 예방 안전교육 프로그램, 24시간 긴급 상담 핫라인, 법률 피해 사례 소개 워크숍 등의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혼자 위기 상황을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제도로서 초기 적응을 도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대학생들이 다양한 공간과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고의 정정의 사례 중 공간성과 결부한 분석에서는 기숙사에서 자취로 거주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개인적 공간 확보와 심리적 안정감 구축이 위기 극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유학생들 중 심리적 안정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뜻한다. 따라서, 유학 시점별로 유학생들이 지내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학 초기에는 낯선 공간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 안에서 심리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유학 중기에는 지역 탐방이나 대학 간 유학생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년배 공동배움 체계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한 또래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업수행과 일상생활 지원, 스트레스 해소와 미래 전망 등을 아우르도록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대학생의 학업 성과와 상호문화 교류

증진에는 소속감 형성과 동료 지지 확보가 유학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지적과도 관련되므로(Gehreke et al, 2024), 유학생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언어, 정보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할 수 있게 튜터링, 멘토링,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다층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박종호 2024). 그에 병행해서, 기숙사 층별 책임제 도입과 월 1회 정기 면담을 통해 생활 전반의 문제 해결을 돕는 종합적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 관련 지원은 개별 유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 제도적인 환경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시민의식을 함양할 교내외 활동과 봉사 기회의 적극적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지지체계 축소나 활동 시간 부족으로 한국 사회 밖에서 소외된 채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회적 교류를 확대할 기회는 학교 안에서의 소규모 활동이나 교과목 이수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부재했다. 이를 보완하려면 전공별 스터디 그룹 운영, 문화 적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워크숍, 생활 밀착형 멘토링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대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혼성 봉사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언어가 서툰 외국인 대학생에게는 통역 지원 멘토를 배치하여 각종 활동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전공,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다문화지원센터 언어교육,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요양시설 정서 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학기 단위로 정기 운영함으로써 지속적 참여를 조력할 필요도 있다. 활동 전후에는 시민성 증대 목적의 교육과 성찰 워크숍을 진행하고, 봉사 경험의 대내외 공유와 더불어 사회적 기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요청된다. 우수 봉사자 장학금, 봉사 시간 인증서 발급, 교과목 연계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 대학생들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노력에서 고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두지 않고, 제도적 기회를 향유하며 한국 안에서 관계망을 확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유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 경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업과 일상 적응 중 어느 한 단면에 집중한 종전의 접근과 달리, 위기와 그것의 극복을 유학생생활 당사자의 구체적인 내러티브에 접근하여 밝혀냈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중국인 대학생의 개인적 성장과 고유한 적응 그 자체에 주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정책의 대상자가 아닌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자기 인생의 적극적 행위자로 여겨지도록 하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에 더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진정한 다문화 통합을 위해서는 대학생 개인의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포용성 확대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점도 연구의 함의이다. 다만, 인생의 위기가 총체적인 삶의 궤적 아래 복잡다단한 의미를 지님에도,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재한 중국인 대학생 학생생활에서의 위기 극복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행동전략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인만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해 다른 국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므로, 차후 서로 다른 문화권 간 다른 유학생들의 적응 양상이나 위기 극복의 현실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신: 김서현(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부교수)(shkim717@jbnu.ac.kr)

Correspondence: Seohyun Kim(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shkim717@jbnu.ac.kr)

2025.07.16 접수, 2025.07.24 심사, 2025.08.20 게재확정

참고문헌

- 교육부, 2024,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검색일: 2025.06.25).
- 구지은·박형준, 2022,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이탈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지역 K 대학교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2, 1-29.
- 김경남·김남희, 202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동기와 국내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

- 구, *교육과학연구*, 52(3), 27-52.
- 김명·임선아, 2021, 중국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외로움, 언어능력, 자기효능감과 학업중단 의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705-717.
- 김병국, 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서현·두지가, 2024, 국내 대학원 재학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에서의 그릿(Grit) 성장 경험,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4), 99-131.
- 김솔·김보영, 2024,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문화예술*, 5(3), 1-16.
- 김재희·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성취 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김지영·김정숙, 2015,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8), 1-31.
- 김필성, 2015, 내러티브 탐구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고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2), 103-118.
- 김해연 외, 2019,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이 유학생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인성향, 내외통제성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81-96.
- 김현화 외, 2022, 유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그릿과 학업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305-321.
- 남순현, 2021, 중국인인가? 유학생인가? 중국 유학생의 민족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745-770.
- 박선진 외, 2018, 언어 장벽을 경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피드백 기반 수업의 활용, *교양교육연구*, 12(6), 119-142.
- 박종호, 2024,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적응을 위한 방안 연구: J 대학 유학생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국과 세계*, 6(1), 5-23.
- 박지선·천지은,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음주습관 간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33(4), 97-120.
- 배진형·안정선, 2016, 사회복지학전공 유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H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39-72.
- 법무부, 2024, 출입국정책 통계, <https://www.moj.go.kr/moj/index.do> (검색일: 2025.06.25).
- 법무부, 2025, 초기 적응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회통합정보망*, <https://www.socinet.go.kr> (검색일: 2025.07.15).

- 서영주, 2020,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생활 경험 내러티브 탐구: 부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35-58.
- 석소원·김서현, 20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여성의 양육환경 인식, *사회과학연구*, 33(4), 185-215.
- 손상미, 2024, 유학생 에세이에 나타난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리더러시연구*, 15(2), 403-427.
- 송비정·홍재영, 2020, 초등학교에서 시각장애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시각장애연구*, 36(4), 85-116.
- 염지숙, 1999, 내러티브(Narrative Inquiry) 탐구를 통한 유아 세계 이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 경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3), 57-82.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왕군·지명영, 2024, 문화적응 어려움을 극복하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끈기가 중국 유학생의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11(5), 275-291.
- 왕정정·김기용, 2024, 중국 유학생의 회복탄력성, 그릿(Grit)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듀테인먼트연구*, 6(4), 289-299.
- 유강서신·박지혜, 2024,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논총*, (39), 54-71.
- 유영향 외, 2023,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정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공공사회연구*, 13(2), 127-159.
- 유지현·김혜영, 202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비대면 수업 만족도와 학생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62), 122-147.
- 이만제, 2018, 중국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유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9, 5-40.
- 이서정, 2018, 대학생의 자기분화,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정상담학연구*, 3(2), 63-81.
- 이영준·이유경, 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중도포기 예측 모델 개발 연구: 재한 베트남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9(3), 317-337.
- 이윤희 외,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157.
- 이은성, 2020, 외국인 유학생의 회복탄력성, 그릿, 한국어 학업 성취도의 관계성 연구, *한국어교육*, 31(4), 251-274.
- 장이, 2019, 재한 중국 유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문제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은·구자경, 2017,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문화연구*, 23(6), 691-714.
- 전영환 외, 2023, 의존의 사실 차원에서 살펴본 중국 유학생의 삶의 자리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0), 523-533.
- 정경희·김영순,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5.
- 정연숙 외, 2022,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경험과 지역 적응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교육학연구*, 60(6), 173-213.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8(2), 150-185.
- 정은우·송연주, 2024,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질적탐구*, 10(3), 247-267.
- 주월랑·강병현, 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한국어능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3(1), 231-246.
- 최성호·장경원, 2018,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615-640.
- 최승은,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43-167.
- 최윤희·이정은, 2016, 재한 중국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1), 91-115.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및 연수생 현황,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검색일: 2025.06.27).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Abate, B. B. et al., 2024, Resilience after adversity: An umbrella review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promoting interventions. *Frontiers in Psychiatry*, 15. Doi: 10.3389/fpsy.1391312.
- Ahrari, S. et al., 2019, A stranger in a strange land: Experiences of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in Malaysia.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29(3), 611-632.
- Alshammari, M. K. et al., 2023, The challenge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 critical analysis of coping mechanisms and support services. *Information Sciences Letters*, 12(4), 1241-1245.
- Andales, R. C. et al., 2025, Grit and resilience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Studies*, 8(1), 77-102.

- Bloom, B. L., 1963, Definitional aspects of the crisis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7(6), 498-502.
- Bonanno, G. A. et al., 2024, Resilience and disaster: Flexible adaptation in the face of uncertain threa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5(1), 573-599.
- Branje, S. et al., 2021, Dynamics of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1(4), 908-927.
- Calo, M. et al., 2024, Grit, resilience and growth-mindset interventions in health professional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edical Education*, 58(8), 902-919.
- Clandinin, D. J. and F. M.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landinin, D. J. and M. S. Murphy, 2009, Comments on coulter and smith: Relational ontological commitments in narrativ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38(8), 598-602.
- Clandinin, D. J. and J. Rosiek,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edé, M. et al.,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Creswell, J. W. and C. N. Poth,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Ene, E. and H. Orlando, 2022, International students and autonomy in service-learning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ourse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28(2), 1-21.
- Feder, A. et al., 2019, The biology of human resilience: Opportunities for enhancing resilience across the life span. *Biological Psychiatry*, 86(6), 443-453.
- Gehreke, L. et al., 2024, Effectiveness of peer mentoring in the study entry phase: A systematic review. *Review of Education*, 12(1), 1-32.
- Haas, B. W., 2018,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improved cultural awareness: A quantitative review. *Intercultural Education*, 29(5-6), 571-588.
- Kim, J., 2015, *Understanding Narrative Inquiry: The Crafting and Analysis of Stories a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im, J. and E. Kim, 2019, A study of Chinese student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24(4), 99-112.

- Kim, M. S. and T. M. Amar,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somatization among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loneliness. *Current Psychology*, 44(4), 2263-2278.
- Kvale, S., 1994,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Li, J. et al., 2015, East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4(4), 301-313.
- Li, L. and W. Peng, 2019, Transitioning through social media: International students' SNS us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8, 69-79.
- Li, X. X., 안도희,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33-155.
- Li, Y. R., 2017,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경험과 진로선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iu, W. and A. Rathbone, 2021,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Journal of Belonging. Identity. Language and Diversity*, 5(2), 42-58.
- Mitchell, L. L. et al., 2021, A conceptual review of identity integration across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7(11), 1981-1990.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4), 177-182.
- Oscarsson, O., 2022, Crisis-as-practice: Conceptualizing the role of everyday work practices in crisis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83. Doi: 10.1016/j.ijdr.2023.103438.
- Peng, H. R., 김주경, 2024, 중국 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28(3), 73-94.
- Potterton, R. et al., 2022, Identity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disorders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1), 16-29.
- Poyrazli, S. and K. M. Grahame, 2007, Barriers to adjustment: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in a semi-urban campus community.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4(1), 28-45.

- Quaglio, T. C. et al., 2025, The role of cop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razilians in Ireland. *DBS Applied Research and Theory Journal*, 2(1), 186-214.
- Schäfer, S. K. et al., 2024, A systematic review of individual, social, and societal resilience factors in response to societal challenges and crises. *Communications Psychology*, 2(92). Doi: 10.1038/s44271-024-00138-w.
- Schwartz, S. J., 2016, Turning point for a turning point: Advancing emerging adulthood theory and research. *Emerging Adulthood*, 4(5), 307-317.
- Singh, J. K. N. and G. Jack, 2022, The role of language and culture in post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and academic success: Qualitative insights from Malaysi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2(2), 390-412.
- Southwick, S. M. and D. S. Charney, 2018, *Resilience: The Science of Mastering Life's Greatest Challenge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rana, A. and W. Al-Delaimy, 2023, A systematic review of cross-cultural measures of resilience and its promotive and protective factors. *Transcultural Psychiatry*, 60(4), 733-750.
- Terry, D. et al., 2024, The mechanisms of student grit at the height of a major crisis: Identifying key predictors when times get really tough. *Nursing Open*, 11(1). Doi: 10.1002/nop2.2069.
- Thies, T. and S. Falk, 2024, Which factors drive major change and university dropout?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degree-seeking students at German Univers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4(1), 326-346.
- Walsh, F., 2020, Loss and resilience in the time of COVID-19: Meaning making, hope, and transcendence. *Family Process*, 59(3), 898-911.
- Xing, Z. and C. Ge,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xercise and social adjustment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Frontiers in Psychology*, 16. Doi: 10.3389/fpsyg.1525811.
- Yan, X. C. 외, 2024,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에서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6), 823-839.
- Yang, Q. et al., 2022, Multiple role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tress and psychological security of college freshmen. *Frontiers in Psychology*, 13. Doi: 10.3389/fpsyg.824214.
- Yang, Z. Y., 2021, 재한 중국인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Yunus, N. A. et al., 2022, Reporting of the translation process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A neglected impor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21, 1-6.
- Zhou, S. and J. Yin, 2025,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 media use: An integrative review of research over a decad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9(1), 42-63.
- Zietse, J. et al., 2025, Daily resilience: A systematic review of measures and associations with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experience sampling stud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6.

Crisis-Management Experienc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Zhijia Du* · Seohyun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Chines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cope with crises during their study-abroad experience using Clandinin and Connelly's (2000) narrative inquiry. Four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their stories were analyzed using a three-dimensional framework: temporality, spatiality, and sociality. Despite various challenges, participants showed resilience and adapted through personal effort. Five key themes emerged: 'from the silence of language to the resonance of scholarship,' 'belonging in the labyrinth of relationships,' 'independence from dependence,' 'bridges on a lonely path,' and 'a new direction from a shaking compas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strategies are proposed to suppor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risis management and social adaptation in Korea.

Keywords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tudy-Abroad Experience, Crisis Management, Narrative Inquiry

* First Auth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Ph.D. Candidate, duzhijia123@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shkim717@jbnu.ac.kr